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군민들 적극 동참 돋보여

숙박관광객 비중 높아... 살거리·지역문화·접근성 등 보완 필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 및 열린 토론회가 26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평가보고 및 토론회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축제 전문가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21회 축제 영상물 시청과 평가보고,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석대학교 김관영 교수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를 통해 "주제 집약적인 프로그램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환경, 참여, 소득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며 "지속가능한 국내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축제장 동선 체계정비와 국내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타시도와 연계한 관광객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해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의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 △반딧불이 체험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놀이 공연 프로그램이 잘 조화된 점 △편의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운영 등을 꼽았으며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어린이 푸드코트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

그램의 기획·운영, △야간 프로그램의 개선과 변화, △방문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 △행사장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체험 프로그램의 묶음 판매방식 고려, △외래 방문객 유치를 위한 전담 여행사 제도 강화, △무주군 관광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판매, △마을로 가는 축제 등 축제 속의 축제 기획, △무주향토 음식관의 가격 및 음식 종류에 대한 고민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 평가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최종 표본 596명(신비탐사 포함)을 대상으로 방문객 설문과 현장면접, 축제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에는 행사내용과 재미, 지출비용 등 문화관광축제 공통 평가항목을 비롯해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행사와 행사장 관련 불편사항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결과를 보면 주방문 집단은 20~30대로 전주/전북, 대전/충남지역에서의 방문이 두드러졌으며 가족과 친지,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온 숙박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축제의 재미와 프로그램, 사전홍보, 안내해설, 시설안전 등

항목에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살거리와 지역문화, 접근성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올해는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했고 그만큼의 열정도 필요했던 것 같다"며 "함께 고생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찬사도 보내주셨지만 반딧불축제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누구나 개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 시간이 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축제발전방안 열린 토론회에는 무주군의회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관광대학 김윤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무주반딧불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축제성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내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무주를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25만여 명이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주제관 운영과 낙화놀이, 샐러다 등 전통놀이 시연 등에 동참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이홀에 관객 700여명 몰려

소리꾼 장사익-루마니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영혼의 소리꾼 장사익과 루마니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콜라보 공연이 25일 저녁 7시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방문객 25만 시대를 연 2017 진안홍삼축제 성공을 기념해 연 이 날 공연은 공연시작 4시간 전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공연장은 300여명의 관람객으로 가득차며 자리가 부족해 입장하지 못한 400여명은 진안을 광장에 마련된 야외 생중계장에서 관람했다. 관람객 700여명이 찾은 것은 2014년 문화의집 마이홀 개관 이래 최고 기록이다.

군은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수준 높은 공연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연에 대한 정보 등을 알리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만족도를 높여 보다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연장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 무진장소방서, 11월 30일까지

무진장소방서는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앞두고 화재 예방과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어린이 불조심 작품을 공모하고 26일 밝혔다.

공모 부문은 포스터 부문으로 화재 예방과 불조심 생활화를 주제로 작성하면 되고, 참가는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4절지 도화지에 물감 및 크레파스 등 구분 없이 사용하여 무진장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수여된다.

김일선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나 가정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모전 문의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360-6242)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추가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는 지난 25일 2017년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추가 지원과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번째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 확보한 3,500만원 사업비에 대한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접수된 28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사업 수행 실적 여부 및 지원액 등을 심의해, 이중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에 대한 행사 참여비 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28개 동호회의 활동지원비 2,500만원 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7년 10월 현재 7개 분과, 83개 1,446명이 등록돼 있다.

장수군 및 장수문화원에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심의 결과에 따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공간 및 강사료 지원 등 동호회 활동지원 및 시·군 단위 행사참여 지원, 생활문화시설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장수군은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총 45개 동호회에 대하여 동호회 활동지원 1억1,000만원, 행사 참여비 5,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주민 삶의 질·자치단체 역량분야' 우수성 인정받아

장수군이 '주민 삶의 질과 자치단체 역량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장려상에 선정,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선정 사업에는 196개 시·군·구가 참여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생산성 지표에는 주민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등 개념을 포함, 전통적

인 생산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평가방법으로 측정됐다.

장수군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장수 만들기 역점을 두고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역 활성화지역 선정, 농어촌임대주택 건립 유치, 뜰생생태관광지 지정, 장수~장계간 국도확포장 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공모사업을 잇따라 유치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군은 "민선 6기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장수군이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개최

무주군 무주를 자납공원에서 26일 개최된 제22회 무주군 반딧불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정석씨(안성면)가 최우수상, 신진철씨(무주읍)가 미경산우, 그리고 이미자씨(무주읍)가 암송아지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중 최우수 무주군이 희소가치가 높은 최우소를 지역특화 축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정란 이식을 통해 현재까지 126마리가 생산된 상태다.

반딧불 한우경진대회에는 지난해부터 출품되기 시작한 올해도 26주 중 6두가 출품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동향면에 '보금자리 4호' 탄생

육묘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박 씨의 네 가족 입주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로 꽃피운 진안군 동향면 보금자리 4호가 탄생했다. 4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관내 종교계와 개인 등이 후원금을 모아 이뤄졌다.

26일 가진 입주식에는 이항로 군수와 박명석 의장,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 대전개인택시진안항우회 정양우 회장, 진안군재난자원봉사단 강성만 단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집 주인공인 박 씨의 네 가족은 거주할 곳이 없어 천반산구리고 을 정보화마을정보센터 2층을 임대해 생활하다가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동향면 육묘장(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해왔다.

4개월에 걸쳐 신축된 동향면 사랑의

집짓기는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된 안타까운 사연에서 시작됐다. 3년 전 경운기에 왼손가락이 잘라내는 사고를 당한 박 씨의 둘째아들(8세)의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다는 소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되었고, 자원봉사센터는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아 집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이항로 군수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많은 분들의 온정이 모여져 가족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을 만들어 군민 30%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주자 박 씨는 "집이 없어서 이곳 저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내 집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